

# 중국의 자연과 조경



박 정 기

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부 사무국장

우리 지부에서는 「중국의 자연과 조경」이란 주제로 지난 1월 10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상해 항주 소주 장가계 일원을 다녀왔다. 지난 해 일본에

이어 실시한 해외조경연수에 지부 회원 37명이 참여하였고 중국의 대자연과 전통 정원, 나날이 변모하는 오늘 날 중국조경을 보고 느낀 소중한 체험을 소개한다.

## ☞ 대자연 극치 당가계

호남성 서북부 오지에 위치한 [장가계국가삼림공원]은 천자산·삭계육 자연보호구, 원가계·양가계 풍경구 등 면적 400km<sup>2</sup>에 달하는 고산지대로 100m가 넘는 거대한 봉우리(石柱)가 병풍처럼 치솟아 대협곡을 이루고 가시나무류와 녹나무류, 굴거리 등 아열대 상록교목·만경수목이 한겨울 녹색원시림을 이루고 있고 연평균 기온 16℃ 강수량 1500mm 안개(雲霧) 낀 날이 많고 태풍과 낙뢰가 없으며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리적 조건이 天下第一景을 보준한 功臣이다. 1997년부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접근성을 우선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점을 연결하여 하나의 동선으로 사람들이

이루고 있고 연평균 기온 16℃ 강수량 1500mm 안개(雲霧) 낀 날이 많고 태풍과 낙뢰가 없으며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리적 조건이 天下第一景을 보준한 功臣이다. 1997년부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접근성을 우선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점을 연결하여 하나의 동선으로 사람들이



▲ 원가계풍경구에서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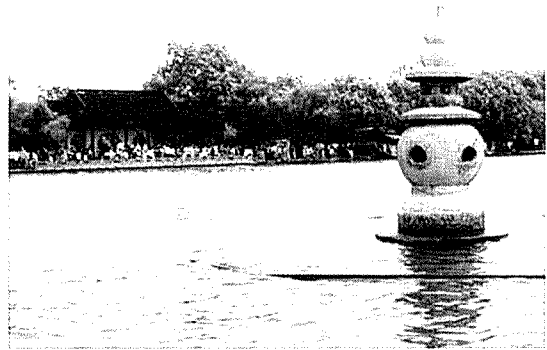


▲ 천자산자연보호구 어필봉

이동하게 하고 천자산 케이블카, 수요사문 백룡엘리베이터, 십리화랑 모노레일, 보봉호 전기유람선 등 편의성에 기하여 문명의 이기를 설치하되 그 자체가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고 풍광을 최고로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관광지=자연파괴’라는 관념을 무색하게 하였다. 하룡장군공원, 야외무대, 전망탑, 인공폭포, 전통의상모델, 발맞사지, 특산품매장이 있고 현지 가이드·차량 의무사용등 관광자원에 역사와 문화, 지역색·경제논리를 접목하여 ‘자연이든 인공이든 돈만 되면..’이라는 黑猫白描論을 실감했다. 인상적인 것은 원가계·금편계곡·황룡동굴등 탐방로 전구간을 석재로 석축·계단·포장을 하고 안내판도 돌로 만들어 만리장성 저력을 대륙 어디에서나 실감하였고 자연석 접합 또는 인조목에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눈속임 기술이 대단하였다.

### ❁ 자연과 인공의 조화 서호

절강성 항주시내에 있는 서호(西湖)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에 인공섬·뚝을 만들고 樹林을 조성하고 누각을 짓고 다리를 놓고 배를 띄워서 빼어난 명승지로 거듭 태어났기에 ‘인공은 자연과의 부조화가 아니라 풍수경관을 보완, 완성도를 높이는 고도의 조경 기술이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인공미가 나는 도심공원이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로 느껴지도록 보존하고 호수 가장자리에 남송시대 정원이 산책길로 이어져 중국도 웰빙이 화두인듯.



▲ 서호 삼담인월 등롱(三潭印月 燈籠)



▲ 西湖十景 花港觀魚에서 이건성 지부장

중국 3대 명소 서호 어디에서도 Topiary나 등근형 등 전정된 조형수목을 발견할 수 없었다.

### ❁ 전통조경 단수 예원/툄정원

상해 구시가지 북단에 위치한 예원(豫園)은 명나라 1559년~1577년에 걸쳐 조성되었는데 반윤서란 관료가 부친에게 효도하기 위해 세운 대저택으로 화동(華東)의 名園이다. 북경 정원이 광대한 것과는 달리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각(殿閣)과 마당, 뜰, 연못을 아기자기하게 배치하여 공간적 한계와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한층 고급스러운 함축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설계의 오묘함과 오랜 기간 조원(造園)한 결과물로서의 예술작품을 접하는 듯 탄성이 절로 나왔다. 송죽(松竹)과 매화 동백 태산목 목서 등 화목을 독립식재하고 기암괴석을 View point에 배치하고 마당과 원로(園路)는 해미석으로 섬세하게 전통문양을 새겨 포장을 하였다.





▲ 졸정원 전경



▲ 졸정원 園路포장과 초본식재

소주시 졸정원(拙政園)은 창랑정(滄浪亭) 사자림(獅子林) 유원(留園)과 더불어 4대 명원이고 그 으뜸으로 꼽힌다. 명대 예원보다 앞서 1522년에 낙향한 관리 왕헌신이 조성하였고 4ha 면적중 60%가 연못이며 물 주변으로 가산(假山)봉우리와 수목원(童山)을 조성하고 크고 작은 누각 정자 주거를 배치하여 돌다리와 곡선 園路를 따라 풍광을 즐기고 東·中·西園으로 구획, 변화를 기하여 나름의 감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 造園技術이 돋보였다. 자연석 호안(湖岸)과 화계(花階), 웅장한 괴석 배치, 화려하고 정교한 해미석 디자인 포장, 큰키나무 아래를 비롯

해 그늘진 곳에 맥문동으로 여백처리, 대나무파고라와 울타리, 작품성 높은 분재, 원양새 입식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다.

### ♣ 원림녹화협회를 찾아서

중국연수기간중 우리 조경수협회격인 원림녹화협회를 국내 업계 최초로 방문, 韓·中교류와 우호협력을 다지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

2003년 8월에 창립한 上海市園林綠化業種協會:Shanghai Landscape Architecture And Gardening Trade Association, (영문약자:SLAGTA)는 시공, 설계, 수목, 자재, 임대, 보수업등 31개 회사가 회원으로 있는 조직이며 상해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세계박람회(2010 Expo) 개최로 조경시장 확대를 계기로 개혁개방시대에 시장경쟁력 증강이란 모토로 급성장하고 있다. 회원간 연대를 통하여 기술·정보교류, 과당경쟁방지노

력과 조경업종통계조사, 업종정보공표, 수목공급조



▲ 원림녹화협회 비서장과 대담하는 이건성 지부장

절, 기술인력양성,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대형프로젝트 자문, 신규사업자 자격심사, 관련입법건의, 정부정책공청회 참가하므로서 민간단체이나 그 역할을 볼때 정부기구에 못지 않다. 직제는 회장 1인 비서장 1인을 두고 회원사중 회장단 1개사(社) 부회장단 5사 상무이사 9사 이사 27사와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綠化參考」와 소식지 「協會動態」을 발간하고 최근 상해시 향두진 인민정부와 화동(華東)지역 상업인터넷망 원림네트워크(www.lvhua.com)과 공동으로 현지 최초로 조경장비소재(Landscape Material)매장을 오픈하였다. 우리 일행이 상해원림협회를 찾았을때 쉬위이싱 비서장, 쩡러이 Economit가 접견하였고 上海綠地集團(그룹), 上海錦展園林設計, 上海上房綠化建設, 上海錦順覽服務 등 有限公司단위 회원사와 조경설계분야 석학들이 배석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기술교류·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상견례, 기념품증정, 양측 기초연설, 질의응답, 중국측 시공·설계 영상물 시청순으로 진행되었고 답례로 조경시공사례도감 「上海園林綠化企業風采實錄」을 받았다.

▲상해시원림녹화업종협회 홈페이지:  
WWW.slagta.com

## ▶ 동국 조경 현두노

### 1. 조경양식

장가계 서호 예원 졸정원 한산사 영은사 호구 등



▲ 주립형 대나무

‘과거’는 천연(산·호수)은 물론 인공(정원·사찰)도 그들의 전통방식대로 간직되고 있었다. 물과 돌, 나무와 사람 이들의 조화를 꾀하는 깊은 성찰이 설계요, 장구한 세월이 시공이라 여기는 만만디가 바로 [중국정원]을 만든 장인이리라. 상해 향주 소주 도심의 가로(街路)·공원·학교·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과 공항, 고속도로, 공단 등 ‘현재’는 문명발생론에서 그들과 경쟁하였던 유럽풍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색하는 즐거움이 있는 ‘中華中心’과 대칭과 디자인, 배색을 중시하는 ‘Global standard’가 양립하고 있는 셈이다.

## 2. 조경수목

자생수종 중국명 金桂(금목서) 香樟木(녹나무) 廣玉蘭(태산목) 등 상록교목을 선호하고 주류를 이루지만 히말라야시다 플라타너스 포플러 등 세계수종도 오래전에 도입(식재)되었다. 대나무 종려도 오래전부터 식재하고 메타 유카 아와나무 팔손이 소철은 근래에 도입된 듯 대형목을 많이 볼 수 없었으며 워싱턴·코코스야자 유도화 느티 자귀나무 동백 애기동백 청목 향나무(선향/옥향)은 최근에 도입된 듯 가끔 볼 수 있었고 드물게 백송 목련 뽕나무 영춘화도 있었고 회양목 돈나무 풍년화는 많이 보인다. 맥문동은 오래전에, 붓꽃과 팬지는 근래에 도입, 과수는 감굴나무외는 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주류인 소나무 향나무는 선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없는 회화나무(水楊性)와 대나무(株立形)가 호감. 上海市



▲ 수양성 회화나무

木 향장목 재배포지 다수. 수종면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단조롭다는것이 衆論. 평지(畚)에 계통생산포지가 많았다.

### 3. 식재패턴

- \*가로수 : 우리나라보다 식재간격이 매우 짧다.
- \*고속도로 나들목 일대 : 상록교목과 중교목 대관목으로 입목밀도를 극히 높게 식재 수림대 형성
- \*고속도로 가로변 : 유도화 선향나무 녹나무 메타세퀘이아로 2중 3중 열식(列植)수벽처리 고밀도 완충녹화
- \*도심 고가도로 : 난간에 영춘화 혹은 황매화로 보이는 반덩굴성 관목 플랜트 배치하고 상판아래는 팔손이 붓꽃을 전면(全面)식재
- \*공항주변·도심공원 : 상록교목 및 느티 등 낙엽교목 3~5주 기식(寄植). 대나무 군식 관목 운형(雲形) 혹은 디자인 군식
- \*다중이용건물 : 구체화단에 회양목 열식·실내외 수목·관엽숲 배치
- \*중앙분리대/경계화단/법면 : 회양목 풍년화 철쭉 여백처리

### 4. 냉옥·관리면에서

- \*연평균 기온이 높고 雨天日이 잦다.
- \*가뭄 홍수(폭우) 혹은 태풍 등 기상재해가 적다.
- \*교목은 지하고를 높여 자연수형으로 육성한다.
- \*관목 식재는 많고 잔디, 초화류(꽃) 식재는 적다
- \*토피어리, 둥근형 등 전정을 요하는 조형수형이 거의 없었다.
- \*관리장비는 뒤떨어지나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다.
- \*잠복소는 설치하지 않고 주간(主幹)을 석회제로 도포하였다.
- \*다우고습(多雨高濕). 수량이 풍부하여 관수비용이 적게 든다.

### 5. 규모와 전망

#### ○ 조경에 대한 인식 전환

☞경제발전 추과 맞물려 불가분(不可分) : 규모 증대

#### ○ 녹화 면적 확대

☞정책적 의사결정과 실행

1인당 녹지면적 : 신발→신문→침대→집한채

※ 상해시원림녹화협회 비서장 기조연설 인용

#### ○ 조경기술 급진전

☞글로벌스탠다드 도입. 조경기술인재양성. 조경업체 조직화 양적 질적 가속성장 예상

### ■ 결론

“상해는 푸르고 있다! 상해는 아름다워지고 있다! 상해는 점점 국제대도시의 매력적인 풍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은 「상해녹화원림협회기업풍채실록」 書頭言이다. 1997년 상해시 1인당 녹지면적이 2.4㎡, 녹지비율이 17.8%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1인당 녹지면적은 10㎡ 녹지비율은 40%에 달한다. 대단한 변모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연수를 통하여 웅장한 대자연과 수려한 전통조경 그 온전한 보전에 놀랐지만 새겨 보아야 할 것은 조경 발전상이다. 이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호조건과 전통식과 현대식 造景美學이 양립할 수 있는 체제와 국민성에 기인한 다 하겠으나 수목 규격재배와 계통출하, 조경업체 조직화, 선진기술 개방과 조경기술인배가 등 조경업계 진일보한 사고와 지속가능한 노력, 조경투자에 인색함이 없는 국가정책이 오늘을 있게 하였다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